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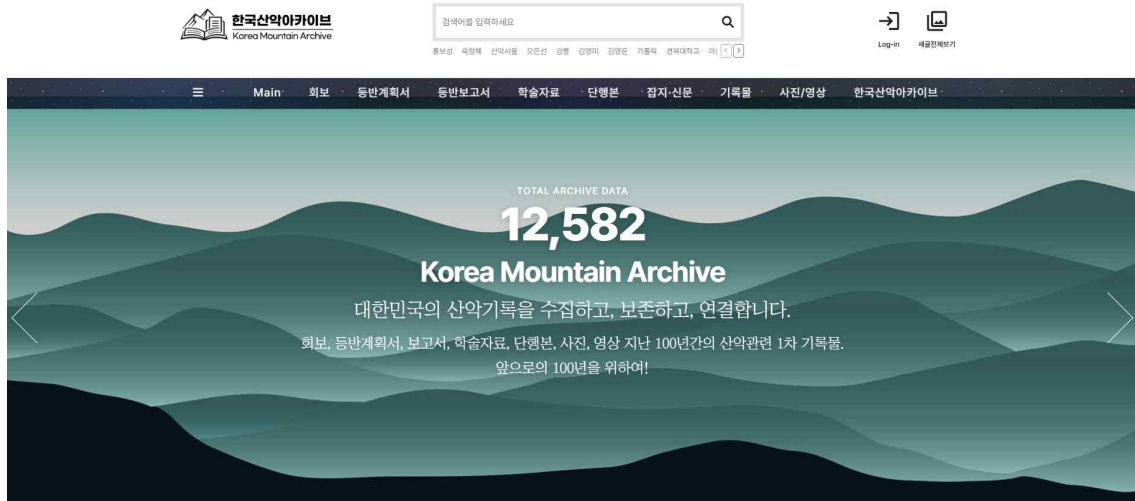
국내 최대 산악 기록 담은 ‘한국산악아카이브’ 구축

- 부산산악포럼 등 국내 산악단체 참여...7월 7일 공개
- 산악 기록물 총망라...1만 2,900여 종 · 120만 쪽 분량
- 회보·등반계획서·보고서·학술자료·편지 등 대거 포함

국내 최대 산악 기록물 1만 2,900여 종을 디지털화한 ‘한국산악아카이브’가 1년여 노력 끝에 7월 7일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한국산악아카이브(<https://mtarchive.kr>)’는 국내 산악 활동이 태동한 1900년대 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산악 자료 1만 2,900여 종을 디지털화했다.

‘한국산악아카이브’는 전문 산악활동에 관련된 국내 산악 관련 단체들이 활동 과정에서 발간한 회보, 등반계획서, 교재, 행사 자료집 등 각종 기록물과 단행본, 잡지·신문 등 매체 보도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는 물론 기록물 발간을 위한 육필 원고, 산악인끼리 주고받은 안부 또는 업무 협조 편지 등 산악 관련 1차 기록물이 총망라돼 있다.



<한국산악아카이브 홈페이지>

‘한국산악아카이브’ 구축 작업은 지난해 3월부터 부산산악포럼이 주도하고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산서회, 그리고 각 지역 대학산악연맹 등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 이뤄졌다.

또한 아시아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을 비롯한 남선우(한국등산연구소 소장), 안중국(전 월간산 편집장) 등 한국 산악계 역사에 정통한 자문위원진과 안일수 호경필 등 운영위원진이 수집 자료의 범위, 분류 등에 참여하여 아카이브의 신뢰도, 공정성 등을 높였다.

문화·체육 분야에서 발간된 모든 기록물을 수집해 디지털 아카이브로 공유하는 일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외국의 경우 스위스 산악회가 연감 및 관련 문헌 7만 쪽을 디지털화했고 영국산악회, 뉴질랜드산악회, 오스트리아산악회가 연보 등의 아카이브 작업을 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이 자체 발행의 연보와 회보를 전자문서화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국내 산악 관련 자료의 디지털화는 ‘기록은 말하고, 우리는 지킨다’를 모토로, 자료 수집과 체계적 보존, 통합 검색, 열람을 통한 산악 관련 지식의 공유를 목적으로 진행했다.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고 차차 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우편으로도 자료를 전달받아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했는데 단체 80여 곳, 개인 60여 명이 자료를 제공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국내 1,500여 단체의 다양한 산악 활동의 기록이 담겨있다.

한국산악아카이브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만 4,384건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단체 제공 산악 기록물 7,507점을 모아 이 가운데 7,038점을 전자문서화했고 개인 제공 기록물 6,677점을 수집, 5,885점을 전자문서화했다. 기록물의 스캔 작업량만 해도 약 120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1차 기록물은 분야별로 다양하게 수집했으며 1950년대 산악회 회보부터 국내외 산을 대상으로 한 등반계획서와 등반보고서, 학술자료, 단행본, 잡지·신문, 기록물, 사진·영상 자료까지 산악 활동과 관련해 만들어진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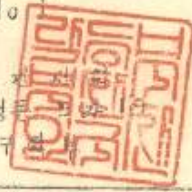
부산등산구락부월보

Pusan Alpine Club . Monthly

1960년 11월 Vol. No. 1

발행인
편집인
발행처

이원락
P. A. C.
부산시 호성로 10번
부산등산구락부



△ 27 번째 월례 등산에 대한 알림

아래와 같이 본 구락부 27번째 등산을 실시하오니 부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가를 바라 나이다

< 적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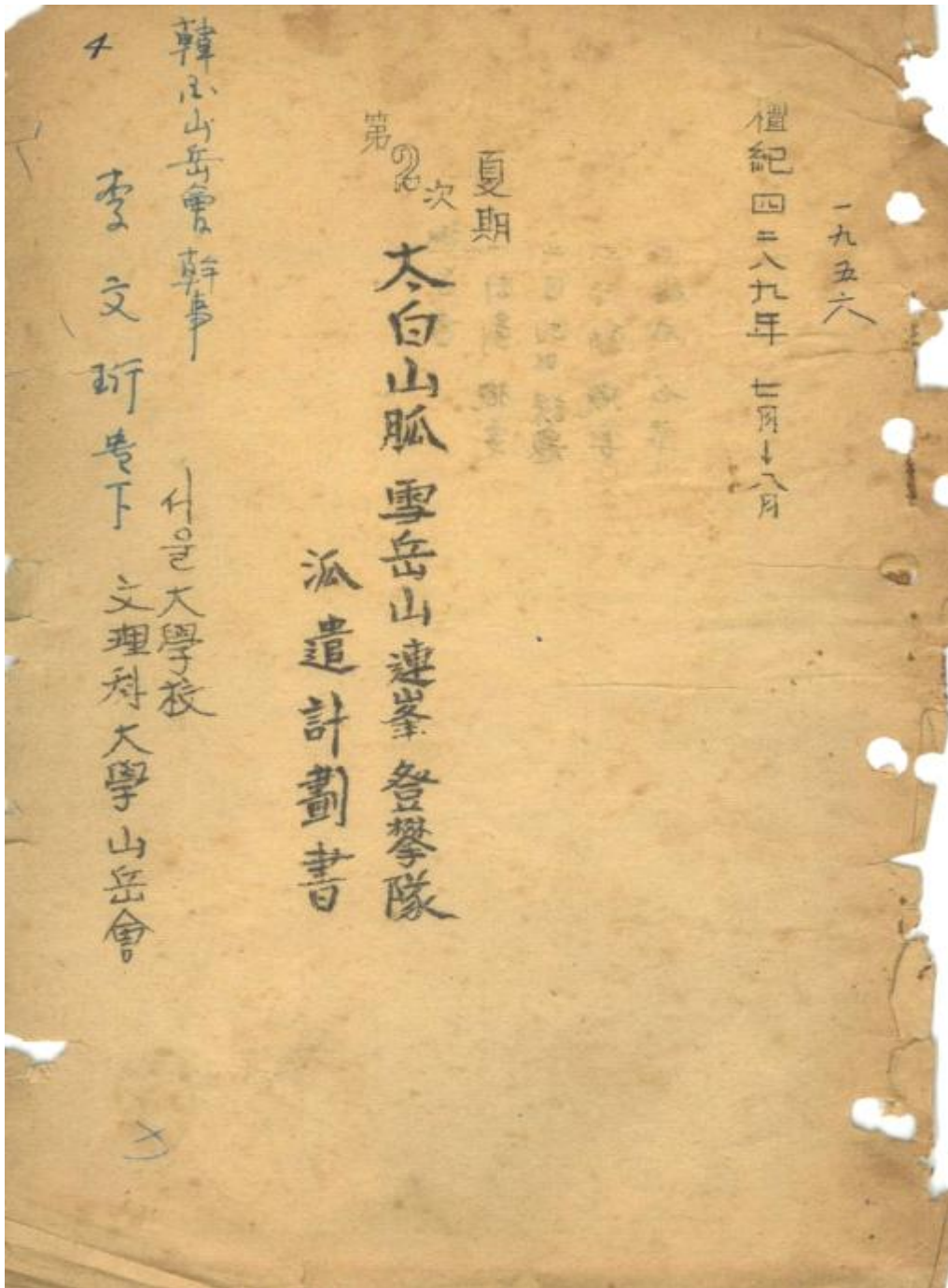
- 목적산 초山 (Chu-san 763 m)
- 소재지 경남 마산시
- 시 일 1960년 11월 13일 (우견불구 당일왕복)
- 집합출발 남포동 주자장 경남여객영건소에 8시정지 집합할것.
8시30분 출발
- 코-스 부산-<자동차>→마산→Y.M.C.A. 내 마산산악회 방문
→선호골 계곡→극락원→중봉(서마지기)→주산
(763m)→두학산(Rock climbing)→자산동→
마산역-<기차>→부산(9시5분)
- 회 비 1,000환 (차비, 간식대 포함)
선 정회원은 7월말 300환을 동시에 낼것
- 현 장 등산용, 등산의뢰 혹은 Sub Sack, 물통,
신발, 기구, 기타 기구등 만우구

김
영
구

<부산산악회 월보 제1호. 1960년 11월>

수록물 가운데 회보 종류는 월보/계보/반연보 2,421종, 연보 1,097종이 수록돼 있는데, 부산등산구락부(부산산악회 전신) 월보 제1호(1960년 11월), 강원대학산악회(옛 춘천농과대학) 계보 '설하' 제1호(1969년 12월호), 가톨릭의과대학산악부 연보 '산친구' 제1호(1992년 3월), 강릉대학교산악부 연보

‘하슬라’ 제1호(1988년 11월) 등 단정한 손 글씨로 쓰인 주요 기록물을 비롯해 대학산악부와 시도산악연맹, 개별 산악 단체의 회보들을 보면 비록 국내의 소규모 등반, 단위 산악회만의 작은 행사라 해도 얼마나 정성들을 쏟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1956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산악회 태백산맥 설악산 연봉 등반대 파견계획서 표지>

등반계획서 부문에는 국내 등반 3,087건, 국외 등반 980건을, 등반 보고서

는 국내 등반 1,098건, 국외 등반 549건을 탑재했다.

국내 등반의 경우 시기별로, 국외는 지역별로 분류했으며 1950~1960년대의 표지가 노랗게 바랜 자료들은 한국 산악계의 오랜 역사를 체감케 한다.

학술자료 부문에는 ▷연구보고서 81건 ▷자료집 135건 ▷교육교재 163건 ▷논문 184건 ▷전시도록 34건을 수록했고 단행본 부문에는 역사, 인물, 기술, 가이드북, 자연문학, 인문/지리, 번역서 1,876종을 수록했다.

기록물 부문에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희귀 자료가 상당수 포함됐다. 고품스러운 대학노트에 기록한 한국산악회 부산지부의 1986, 1987, 1989년 산행일지(기록 최상문), 스프링노트에 약도를 곁들여 꼼꼼하게 기록한 서울시립대학교산악회의 여러 원정일지(기록 김창호) 등은 특기할 만한 자료다.

또 서승일, 성산, 오점량 등 부산 지역 산악인들이 200자 원고지에 또박또박 눌러쓴 육필 원고도 이채롭다.

1981년 9월 29일 김인섭이 홍보성에게 보낸 편지 등, 당시 히말라야 원정 진행 과정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도 다수 수록돼 있다.

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여에 걸쳐 히말라야 8000미터급 14좌 완등을 이룬 부산산악연맹의 ‘다이내믹 부산 희망원정대’ 등반 허가서와 등정 인증서, 원정 경비 정산서, 세르파 조난사 신고 서류 등 원정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는 이 시기 한국 히말라야 원정의 시작부터 끝이 어떠한가를 세세히 살펴볼 수 있는 전형적 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특기할 만하다.

그 외 1960~1970년대의 원정 계획서와 보고서 등, 당시 등산 활동과 관련한 장비의 수준이나 대원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다. 안중국 자문위원은 “AI에 한국 산악인 등반 관련한 질문을 해보면 여전히 말도 안되는 자료를 끌어와 짜깁기해서 엉터리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한국산악아카이브를 통해 이러한 오류들이 대폭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산악아카이브’는 1차 자료를 공공 기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 데 이어 장차 이를 활용한 저작과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산악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부산산악포럼이 주도해서 진행했지만 앞으로 운영에는 여러 단체가 관여한다. 지역별 산악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국내 산악 단체들이 지원·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자료 수집과 운영을 돕는 한편 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개인의 자료 대여와 기증 등을 지속적으로 권유, 자료를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산악아카이브는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료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부산산악포럼 홍보성 대표는 “한국산악인들의 등반활동과 그 결과물들은 단순히 산악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근·현대 한국사회의 역동적 자신감 형성에 큰 역할을 해온 한국민 전체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아카이브로 구축한 1차 자료가 산악 활동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와 저술이 이뤄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홍보성 (사)부산산악포럼 대표(010-5675-3634).